

시·군·구별 '일자리 성적표' 공개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시·군·구별 고용통계가 작성돼 전국에서 어느 지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는지 금방 파악된다.

또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도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돼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지며 상대적 빈곤율이 추가 작성되는 등 양극화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16개 광역 시도별뿐만 아니라 고용통계를 시·군·구별로 세분해서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통계는 현재 고용통계 표본인 3만2천가구가 넘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오는 10월에 약 20만 가구의 표본을 만들어 제1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고용통계가 나오면 어느 지역이 연간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어떻게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고용통계 작성

소득분배지표도 만들어 국가간 비교

되었는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성과 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지역발전 정책을 펼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역별 고용통계가 나오면 지역별 성장률 등도 낼 수 있고 3~4년간 자료가 축적되면 다른 통계도 낼 수 있게 된다"면서 "산업·직업의 소분류별 종사자 통계나 시·도별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 인력수급계획이나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두차례 지역별 통계를 낸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또 그동안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 공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제비교도 가능해진다.

빈곤율도 추가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비율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단 그동안 분기별로 했던 소득5분위 배율은 가구간 소득분배의 실상을 왜곡할 소지가 있어 연간단위로만 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기관에서 중복 작성되는 통계는 하나로 통일하고 정부의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문제도 다각도로 연구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통계청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75종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왔으나 활용도가 크지 않고 모든 통계자료가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정간물 간행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담보·무보증 '서민대출' 확대

당정,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1조원 상향

담보와 보증이 필요없는 서민용 소액대출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합의를 갖고 무담보·무보증 소액 서민금융대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소액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재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하고, 상가건물의 임차료 인상 상한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액을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2차 민생합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금융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 정책과 관련, 당정은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의 경우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제약업계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사료값 인상으로 허덕이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정보지 재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과 빈곤아동지역센터 숫자를 4천개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유가 등 리스크 확대 실물경제 어려움 커진다"

경제전문가 진단 ... 고용부진·물가상승 양극화 심화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유가급등 등 국외의 리스크로 인해 실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이산대 총재 주제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처럼 평가한 뒤 "정책당국은 경기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의 고용 부진과 물가상승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우리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유통 및 물류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준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정부근 국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모기야 물렸거라!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소만(小滿)을 맞아 21일 신세계 이마트 용산점에서 헨켈 홈케어코리아가 새로 출시한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함유된 홈키퍼·홈매트 홍보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소만(小滿)을 맞아 21일 신세계 이마트 용산점에서 헨켈 홈케어코리아가 새로 출시한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함유된 홈키퍼·홈매트 홍보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기외채 급증 ... 대책 검토 중"

최중경 차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더 지켜봐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 "대책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다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와 관련 여러 대응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여진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TV의 힘'

36년만에 세계 시장점유율 20% 돌파 ... 9분기 연속 매출 1위도

삼성전자가 TV 사업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21일 "1·4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2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분기 TV 전체와 LCD TV, PDP TV, 평판TV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20% 시장점유율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TV 전체 시장(LCD TV, PDP TV, 프로젝션TV, CRT TV 포함)은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0.8%, 소니 13.2%, LG전자가 11.6%, 샤프 7.3%, 파나소닉 7.0%로 각각 집계됐다. 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5.7%, LG

전자 13.3%, 소니 8.0%, TCL 7.1%, 필립스 6.5%로 각각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1·4분기 전체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분기 연속, 수량 기준으로는 7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셈이다.

특히 LCD TV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2.2% 시장점유율로 사상 처음으로 20%대 점유율을 돌파했고 뒤 이어 소니 18.1%, 샤프 10.1%, LG 9.7%, 필립스 7.8% 등 순이었다.

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9.6%, 소니 13.3%, LG전자가 10.5%, 샤프 9.1%, 필립스 8.7%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2위 업체와의 격차를 전분기 3.4% 포인트에서 6.3% 포인트로 크게 벌리며 1위 독주를 이어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LCD TV

시장에서 작년 1·4분기 235만7천대 대비 70% 이상 성장한 413만6천대를 판매해 수량 기준으로도 7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LCD TV 판매호조와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평판TV(LCD TV와 PDP TV를 포함) 시장에서 금액 기준 22.3%, 수량기준 19.8%의 점유율을 차지해 LCD TV에 이어 평판TV 시장에서도 20%대 시장 점유율로 자존의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가격경쟁 등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TV 전쟁터'로 불리는 북미 LC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수량 기준으로 1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1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으며, PDP TV 시장에서는 19.8%로 파나소닉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유가 130달러 '초임기'

WTI 129.60달러 ... 또 사상 최고치



20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29달러까지 넘어선 서 포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29.60달러까지 상승,

지난 1983년 원유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 돌파를 가시권 안으로 끌어올렸다.

WTI는 전날 증가에 비해 2.02달러 상승한 배럴당 129.07에 거래를 마감, 증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29달러를 넘어섰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7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장중에 배럴당 128.07달러까지 급등,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증산에 부정적인 석유수출기구(OPEC)의 입장과 중국과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유해 안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中, 투자 선호 1위"

商議 조사 ... 국내 기업 40%가 꼽아

최근의 급속한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준식)는 최근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 중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 3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 조사결과 71.5%의 기업이 '향후 3년간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진출 계획과 관련해 "현상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8.2%를 차지했으며 "축소하겠다"는 응답(0.3%)은 거의 없었다.

현재의 진출여부와 관계없이 3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국으로는 중국을 꼽은 기업이 39.3%로 가장 많았고 미국(12.8%)과 베트남(9.6%), 홍콩(9.0%), 유럽(7.5%), 인도(6.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이 유망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를 '값싼 노동력'(54.5%)과 '시장의 성장성'(44.6%), '값싼 부품, 원자재'(23.1%) 등 순으로 지적했다. /연합뉴스

하나로텔레콤, 고객관리 대폭 개선

'고객가치 경영' 선언 서비스 대대적 강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가치 경영을 선언하며 환골탈태에 나섰다.

20일 하나로텔레콤(사장 조진)에 따르면 고객가치(CV)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3대 고객가치 중 점과제(고객관리의 획기적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 고객지향 조직 혁신)를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전반적인 내부 고객관리 시스템 점검과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 같은 중점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계약 사항과 약속 이행 여부를 전화나 문자메시

지로 확인하는 '해피콜' 운영 ▲녹음 장비 의무화를 통한 고객상담원 실명제 ▲고객정보 모니터링단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문 서비스의 경우 30분 이상 초과시 중 기본료를 50%를 감면해 주는 '방문지연 보상제도' ▲고객불편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인증기사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CV 혁신 일환으로 '하나TV' 상인전용 메뉴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중단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코리텍	프레스 및 금형 생산 사원 -광주 하남공단-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3	031-323-1667
㈜한진기공	2008년 기계설계제정주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5/23	062-953-1642
남부대학교	도서관 사무직원(사서) 공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970-0023
서울컴사(주)	[광주공과대학원]비파괴검사원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369-0790
㈜오피시스	단순경리업무, 전산회계, ERP입출고입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971-5959
브링스코리아 광주센터	현금 및 귀중품 경호 호송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25	062-351-1108
㈜제이원모터스	I/HONDA자동차 2008년 자동차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510-3458
함소아한의원(광주/전남)	원무/수납/간호조무사/운동치료사/코디네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974-1675
민달리인	사무보조 및 경리(주5일근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27	062-382-2879
㈜서울항공여행사	하나로/항공&패키지/월드자이인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225-3636
㈜용문	냉동컨테이너 수리 및 세차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28	061-794-1528
상명건설(주)	건축, 토목, 조정기술자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3600~3800	05/29	062-528-9711
현대기전	경리 및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31	062-522-2000
㈜한림엔텍	의료장비 기술영업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31	062-521-287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